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한휘진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서준원	02-2133-8326
서울도시공간포털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oul.go.kr/)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2026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 금일 처리 안건 : 총 5건
- ☒ 수정가결 5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 2026.08.05.(수) 13:30, 서소문2청사 12층 대회의실 】

■ 총 5건 (신규 5건)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주거정비과〉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	○ 위 치 : 양천구 신월5동 72번지 일대 (29,664.7㎡) ○ 내 용 :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조합운영개선팀 팀장 : 현승주 담당 : 이형진 (2133-7188)
2	〈공동주택과〉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 위 치 : 강북구 번동 242번지 일대 (75,682.5㎡) ○ 내 용 :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지원팀 팀장 : 김 훈 담당 : 최재영 (2133-7141)
3	〈공동주택과〉 개포우성 1, 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경관심의(안))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500번지 일대 (95,592.6㎡) ○ 내 용 : 개포우성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개포우성1·2차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1)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계획팀 팀장 : 박교관 담당 : 김희완 (2133-7142)
4	〈공동주택과〉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 (안)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685-222번지 일대 (119,243.2㎡) ○ 내 용 :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지원팀 팀장 : 김 훈 담당 : 최재영 (2133-7141)
5	〈공동주택과〉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	○ 위 치 : 마포구 도화동 82번지 일대 (69,338.7㎡) ○ 내 용 :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건축사업팀 팀장 : 김 훈 담당 : 이상정 (2133-7148)

2026. 8.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6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이정식

02-2133-7190

재개발관리팀장

현승주

02-2133-718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신월5동 72번지 일대 재개발 본격화... 649세대 열린 주거단지 조성

- 신월5동 72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적용, 보정계수 반영...사업성 개선 주택공급 확대
- 노후 어린이공원 재배치 가로환경 개선, 인근 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열린 단지' 구현

☐ 서울시는 8월 5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화위원회에서 '신월5동 7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2026년 2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 대상지는 용도지역을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총 649세대(공공임대 98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98세대를 포함하여 소셜믹스(Social-Mix) 방식으로 사회적 혼합 배치를 실현한다. 단,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을 고려해 최고 높이는 해발 57.86m(약 14층) 수준으로 결정했다.

- 이번 사업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했다. 허용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까지 완화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정체됐던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다.
- 특히 대상지는 서측에서 추진 중인 신월5동 7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1,241세대 예정)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약 1,89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나며 지역 주민 모두가 향유하는 ‘열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 구역 단위 계획을 넘어 구역 간 공공보행통로, 정비기반시설, 공원 등을 연계해 단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통학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해 서측 구역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노후된 신오어린이공원을 남부순환로 변으로 이전·재배치하고, 공원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개별 구역 단위를 넘어 인접 사업지와 함께 계획한 통합 정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예시도)



2026. 8.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6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재건축지원팀장

김 훈

02-2133-7132

'변동주공1단지' 재건축, 우이천 품은 2,084세대 공급...변동지구 개발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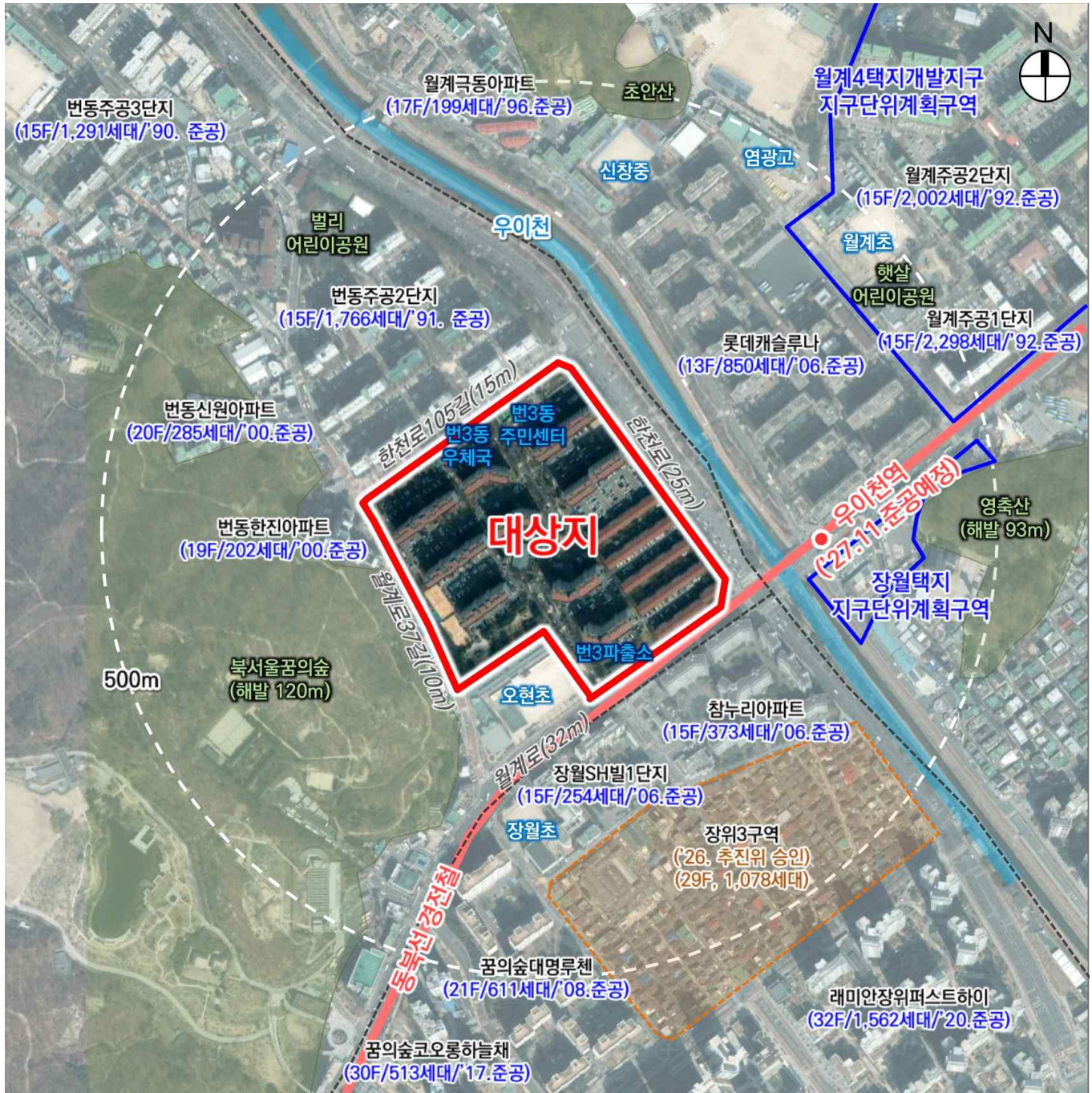
- 제9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변동 택지개발지구 1호 재건축 본격 시동... 신속통합기획 지문 거쳐 계획(안) 마련
- 단지 내 동서·남북 보행축 조성... 오현초 통학환경 개선, 우이천 수변접근성 강화
- 공공청사 이전·사회복지시설 신설 집약배치로 시민 생활편의 강화 주거환경 개선

- ☐ 강북구 변동주공1단지아파트가 재건축으로 2,084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변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되는 첫 재건축으로, 강북구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 ☐ 서울시는 8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변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 대상지는 1994년 준공된 변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으로 기존 1,430세대에서 공공임대주택 119세대를 포함한 총 2,084세대 규모의 최고 42층 대규모 주택단지로 거듭난다.

<지역인프라시설 확충, 통학·보행환경 개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 인접 공원과 완충녹지는 시설 정형화 및 재정비를 위해 정비구역에 포함하였고, 단지 주변에 흩어져 있던 공공청사(주민센터, 우체국, 파출소)는 위치 이전을 통해 집약 배치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꾀했다.
- 수유역 인근에서 임대공간을 사용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전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 실버케어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마련해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오현초등학교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그 주변에 주민공동시설과 개방형 시설을 배치해 단지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 2027년 11월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우이천역과 연계해 단지 남동측 진입거점 휴게공간을 새로 조성하여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변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 우이천과 북서울꿈의숲을 잇는 통경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지 중심부로 고층 배치해 우이천 수변경관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번동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으로 강북구 노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인근 노원구, 성북구 개발사업과 맞물려 동북권역의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치도(강북구 번동 242번지 일대)



□ 조감도(안)



2026. 8. 5.(수)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5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02-2133-7130

재건축계획팀장

박교관

02-2133-714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아파트, 1,603세대 공급...양재천 연결 보행로 조성

- 기존 1,140세대에서 1,603세대로 계획...최고 49층, 장기전세주택 258세대 포함
- 서울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남부순환로에서 양재천까지 폭 10m 공공보행통로 조성
- 늘벗근린공원 정비하고 공공지원시설 확보, 도곡역 인근 근린생활시설 집중 배치

- ☐ 대치동 개포우성1·2차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양재천 경관을 품은 최고 49층 1,603세대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 ☐ 서울시는 2026년 8월 5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일대 '개포우성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정비계획안은 2025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수정가결됐다. 이번 심의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단계이다. 이번 심의로 후속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 개포우성1·2차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도곡역에 인접해 있다. 개포우성1차는 1983년, 2차는 1984년에 준공됐으며, 현재 최고 15층, 총 1,140세대 규모다.

- 대상지는 대청중학교, 양재천, 늘벗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와 선릉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최고 49층, 총 1,6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계획됐다.

- 계획 세대수는 기존 1,140세대보다 463세대 늘어난 규모다. 전체 1,603세대 가운데 일반·조합원 분양주택은 1,345세대, 공공주택은 258세대다.
- 공공주택 258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 주민이 양재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에는 남부순환로에서 양재천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도곡역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보행 동선이 마련된다. 인접한 대청중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남부순환로변에는 폭 5~13m의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이 가운데 최대 폭 13m의 ‘보도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보도형 전면공지는 건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해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공간이다. 보행로와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연계해 거리의 개방성과 이용 편의를 높인다.

□ 단지 남측의 늘벗근린공원도 주민과 학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대치동 일대 재건축사업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공공지원시설을 확보하고, 도곡역과 연계되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보행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공공지원시설은 서울시에 귀속돼 서울시가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세부 건축계획은 향후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이번 정비 계획은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수립됐다. 또한, 인근 수변과 어우러지는 개방감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단지 중앙에는 양재천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통해 건물 사이에서 양재천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단지의 개방감을 높인다.

○ 남부순환로변과 양재천변의 건축물 높이를 조정해 주변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하고, 인근 재건축 단지와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개포우성1·2차아파트의 후속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택 공급과 함께 양재천 접근성, 보행환경, 공원 등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조감도(안)

개포우성1,2차 아파트

선경아파트

타워팰리스

공공지원시설

대청중

공공보행통로 (10m)

남부순환로

근린생활시설

2026. 8.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6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재건축지원팀장

김 훈

02-2133-7132

'구로주공' 재건축, 서남권 '준공업지역' 3,289세대 대규모 주택공급

- 제9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사업성 보정계수 및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 400% 적용 사업성 대폭 높아
- 단지 중심 남북 보행축 조성...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안양천까지 접근성 개선
- 단지 내 현황도로의 입체적 결정... 토지 효율적 활용 및 공공 개방성 확보

□ 구로구 구로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총 3,289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8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아파트는 2020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과 별도획지(상가, 종교시설 등) 편입 협의,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50%→ 400%)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추진동력을 확보했고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거쳐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 대상지는 기존 2,126세대 단지에서 공공임대주택 334세대를 포함한 총 3,289세대, 최고 49층 현대적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정비사업이 물꼬를 트면서 서남권 일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단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북측 주거지부터 걷고 싶은 거리(구일로),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안양천까지 연결되도록 순환형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과 개방형 시설을 배치해 단지와 주변 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 인근단지 진·출입과 버스 통행로로 쓰이던 단지 내 현황도로를 입체적 도로로 결정했다. 지상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 공간을 획지 가용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합리적 단지 배치 계획이 가능해졌다.
- 기존 단지 중심에 있던 주민센터는 우체국, 어린이집과 함께 구일로변으로 집약 배치하고 인접 부지에 공원을 신설해 구일초등학교 및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3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급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구로 일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남권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legible]

□ 조감도(안)



2026. 8. 6.(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6년 8월 6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양준모

02-2133-7130

재건축지원팀장

김 훈

02-2133-713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000.seoul.go.kr/0000>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통과 1,612세대 주택 공급

- 마포구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거쳐 '수정가결'
- 동서 보행축 및 공원 조성을 통한 마포초 통학 환경 개선·한강 접근성 향상
- 우리동네키움센터·서울형키즈카페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 주민 편의 증대

- ☐ 마포구 도화우성아파트가 최고 35층, 1,61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 ☐ 서울시는 8월 5일(수)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우성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기존 1,222세대에서 공공주택 160세대를 포함한 총 1,612세대(최고 35층 이하) 규모의 주거단지로 확대 공급된다. 공공성과 생활편의를 함께 강화해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통학 안전과 생활권 연결을 고려한 단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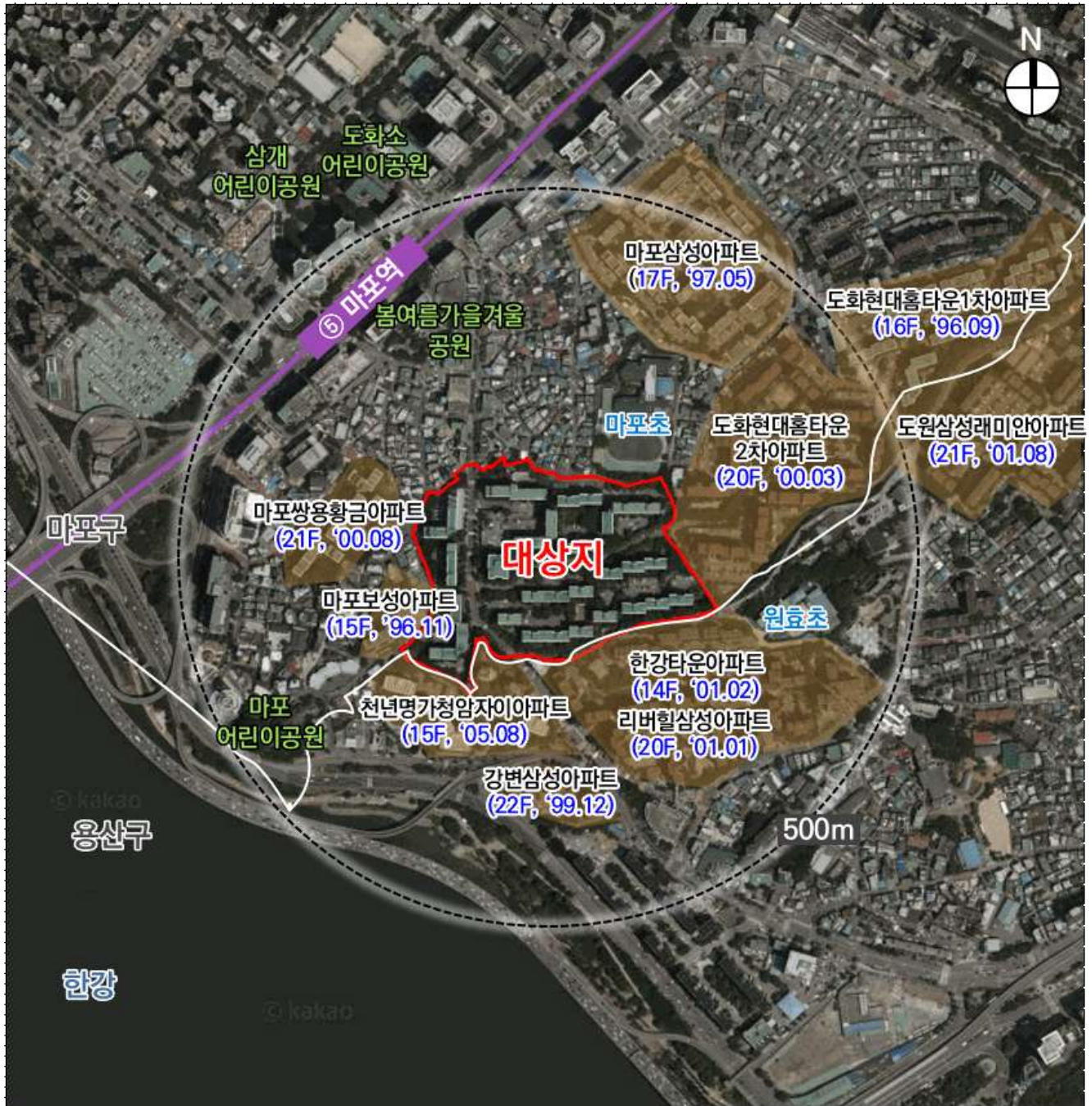
- 이번 정비계획에는 한강과 경의선숲길로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단지 북측 저층주거지와 접한 기존 단지 내 통학로를 고려하여 한강~마포초등학교~경의선숲길로 이어지는 주요 보행축을 연결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마포초등학교 통학로의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 등 확충>

- 지역 내 필요시설과 마포역 상권 등을 고려해 단지 북서측에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계획했다.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작은도서관을 북측 구역경계부에 배치하여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은 한강과 마포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장점을 살리면서 보행과 녹지, 공공시설을 강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서북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조화되는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대표적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각1부. 끝.

□ 위치도 (마포구 도화동 82번지 일대)



□ 조감도 (마포구 도화동 82번지 일대)

